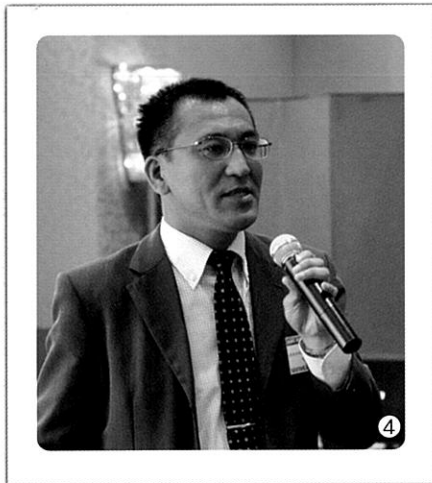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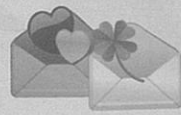
- ① 어항 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상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서기관
- ② 갯벌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국주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장산업팀장
- ③ 어장의 이·활용의 고도화 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호리코시 노부유키 (재)어항어장어촌종합연구소 기술심의역
- ④ 수산기반정비사업의 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나카무라 타카시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 과장보좌
- ⑤ 토론에 응하고 있는 양국 발표자와 좌장(사진 가운데 안희도 좌장 :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명예연구위원)



▲ 한국측 대표단



▲ 일본측 대표단



▲ 6월 19일 본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양국 대표단



▲ 회의 전날 옹진수협에서 조합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일본측 대표단



▲ 옹진수협 방문후 일본측 대표단은 인천종합어시장을 둘러보고 있다.



▲ 회의 전날 환영만찬에서 악수를 하고 있는 방기혁 이사장(좌)과 다나카 준지 회장(우)



▲ 대표단 일행은 경기 화성시 소재 전곡항 마리나 시설을 시찰



▲ 갯벌참굴시험장을 둘러보고 있는 양국 대표단